

천랩, 청약 경쟁률 638.63대 1 기록

- ▶ 일반청약 유종의 미 거두며,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 1호 상장사로 26일 코스닥 상장
- ▶ 향후,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속도 높여 기업가치 제고 주력

<2019-12-18>

'천랩'이 일반청약까지 성료 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플랫폼 1호 상장사'로 오는 2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다.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천랩(대표이사 천종식)이 17일과 18일 양일간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한 결과, 경쟁률 638.63대 1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반 청약 증거금은 약 1조 9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천랩은 지난 12일~13일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의 수요예측에서 국내외 60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시장 친화적 가격으로 공모가를 확정된 후 플랫폼 사업의 글로벌 확장과 함께 맞춤형 헬스케어 제품의 시장 확대는 물론 치료제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천랩 회사관계자는 "이번 청약에 이르기까지 IPO 과정에서 천랩의 기술력과 잠재력에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투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높여 투자자와 결실을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미 천랩은 치료제 후보 균주 CLCC1으로 마우스 테스트를 통해 간암과 대장암 종양 성장 억제 효과를 확인한 상태다. 여기에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성이 높은 고형암 대상 단독 및 병용 항암제 파이프라인 외 염증성 장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자폐 및 치매 중심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도 장착했다.

이와 관련 천랩 천종식 대표이사는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 간 높은 연관성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천랩만의 독보적인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 안전성 우려도 낮고 임상시험 성공가능성이 높은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있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은 빠른 속도로 추진될 전망"이라며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본격화해 상장 후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료문의 : 천랩 황혜진 이사(biohwang@chunlab.com) / 송해선 차장(대표번호 : 02-875-2501)

IR큐더스 한정선 이사 (02-6011-2000 #120) / 강종성 책임(02-6011-2000 #155)

<참고자료>

[천랩 IPO 일정(예정)]

증권신고서 제출	2019년 11월 21일
수요예측	2019년 12월 12일 ~ 13일
청약	2019년 12월 17일 ~ 18일
코스닥 상장	2019년 12월 26일(예정)

공모주식 수	430,000 주
주당 공모가 액	40,000 원
공모 금액	172 억 원
상장 예정 주식수	3,808,948 주
예상 시가총액	1,524 억 원